

특별기고

국민의식 개혁운동 시급하다



김용하
광주시인협회 회장

하늘을 우러러 통탄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다. 어찌 이런 참혹한 일이 대명천지 밝은 날에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어찌하여 만물이 생기를 타고 피어오르는 찬란한 봄날에 저 푸르른 젊음들이 피어 보지도 못하고, 차가운 어둠의 심해에서 몸부림치며 지고 말았는가?

불가항력도 아니고, 찰나에 일어난 일도 아니다. 얼마든지 생명을 구해 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엄청난 대형 참사. 그것도 단 한명의 추가 생존자도 구해내지 못한 비통의 철천지 한을 남기고 말았는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월호 사건이 일

어난지 두달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원혼이 12명이나 있어 그가 죽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사건의 '원흉'이라 지목되고 있는 유병언 등이 잡히지 않아 사건의 배경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온 국민과 국가를 조롱하듯이 숨어 다니며 온갖 유언비어를 낳고, 유가족의 슬픔을 더하고 있다. 거기에는 국가의 공권력마저 무력화 시키면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천안공노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검정은 하루 빨리 검거하여 그 원인과 배경을 밝혀 단죄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반복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당사자가 잡히지 않아 명확한 원인을 알수는 없지만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적폐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요인은 극도의 물질적 배금주의, 비리속에 적당히 넘어가는 행정 편의주의, 인명 경시주의, 한탕주의, 인맥과 학백중심의 사회적 구조, 행정의 구조적 미숙과 무책임, 집단이기주의 같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이 종합되어 일

어난 일이라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할 수임 국민 정부, 행정 등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비능률적 대응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우리 사회의 특정한 일부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가?

지금 유병언을 비롯한 해운사, 선장등 유관 당사자들의 책임이 일차적이지만 과연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정부에서는 특별법제정과 조직개편,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후약방문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외형적인 기구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조치가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모든 국민의 근본적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친 이기주의하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규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의식, 정당한 절차보다는 편의주의적 사고, 인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조직, 지나친 물질주의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에 누구랄 것 없이 매몰되어 있었지 않은가? 누가 누구에게 과연 돌팔매를 던질 자격이 있는가?

가슴을 치는 통절의 회한 속에서나마 '기회는 위기 속에서 온다'는 말과 같이 국가 개조와 발전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아픔 속에서 공감하는 것은 바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치와 사회의 혁신과 개인의 삶의 방식의 변혁을 갈구하고 공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간 존중, 철저한 법과 규칙의 준수, 비리와 부조리의 단절, 역할에 따른 책무의 이행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혁신과 변혁이 가치관으로 정립되고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일대 혁명적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 존중의식과 책임감, 준법, 희생정신 등을 가치관으로 내면화 시키고,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몸이 체득이 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일반시민들에게도 평생교육을 통해 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희생을 막는 게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의 염원을 이루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종교칼럼

자성과 실천의 목소리로



김관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장

2000년 전, 예수님은 당신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이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진아!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뭇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마태 11, 21)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대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두 달하고도 4일이 지나갑니다. 실종자 수습이 늦어지면서 아직 12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성하는 목소리로 이번 대참사의 배경에 우리의 철저한 망각이

있었음을 깊이 통감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대형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침몰 또한 온갖 종류의 '관피아'로 지칭되는 일련의 구조적인 폭력과 부정부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잊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무고한 영혼들 특히 수많은 청소년들을 저 깊고 어두운 바다에 무참히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유가족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생명의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의 깨닫게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수년간 찾아다녔지만, 그들과 삶을 나누지는 못했음을 부끄러이 고백합니다"라고 하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에 떠올리면서 그동안 그분의 고백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음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 20)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 각자도 나름대로 실천의 목소리를 내야하겠습니다. 무

엇보다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공익을 도모하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명을 경시하고 물질만능주의를 맹신하는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가 얼마나 순식간에 침몰할 수 있는지를! 진실이 왜곡되고 불의가 자행될 때, 침묵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제 2, 제 3의 세월호 대참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바다에 뛰어들어 배가 더 기운 것 같다'고 자책하는 생존자 학생! '작한 2학년들의 담임 선생에서 떨어져 속상했는데, 사건 직후에 전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것에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는 단원고 선생님! 살아났거나 살아 있어도 모두가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가족 곁에서 온 마음으로 함께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희생자가족들과 끝까지 연대해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과 정의의 편에서 끝까지 현존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코린토에서 선교를 하던 바오로 사도에게 어느 날 밤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사도 18, 9~10)

특별히 세월호 대참사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연의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굳건한 희망을 믿고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열정과 표현과 방식으로 무력하고 죄책감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이 사회에 희망의 목소리로 외쳐 주십시오. 생명의 하느님께서서는 청소년 여러분을 통해 비통의 세상을 정의가 꽃피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참 세상으로 탈바꿈하고 싶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죽음의 문화를 결코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社說

시내버스 파업한다면 준공영제 철회해야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전국 7대 광역시 중 가장 임금이 낮고 운전기사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며 "임금 인상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15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 후 15일간의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30여 일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애초 9.8%에서 5.29%로 수정 제의했으나 사측이 1.58% 인상안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찬성 92.6%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사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타지역보다 임금이 적고,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 등도 공감한다.

그렇더라도 파업만은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하루 연인원 43만 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극심한 교통대란은 불가

피하다. 광주시가 영입용 택시 부채 해제 등 비상 수송대책을 세워놓겠지만 그 결과는 한계가 있다.

광주 시내버스는 지난 2007년부터 준공영제 실시로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가뜰이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버스업체의 적자 해소와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7년간 무려 2148억을 쏟아 부었다. 올해도 6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다. 그런데도 노조가 시민들의 '발'을 불모로 파업을 한다면 이윤배반이나 다를 바 없다.

노사는 몇 일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광주시 역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되,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데도 버스 회사들이 구조조정이나 원가절감, 업체 간 통합 등 경영 개선에는 극히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사고 부르는 화물차 '과다 적재' 여전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안전의식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화물차만 해도 여전히 규정을 어겨 가며 초과 적재를 일삼아 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화물차 압주와 운전자의 각성 그리고 당국의 안전점검 강화가 시급하다.

지난 18일엔 고흥군 풍양면에서 농동 방향으로 가던 1t 트럭이 갑자기 나뭇굴에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과적으로 보고 있다.

1t 트럭 적재함에는 범규상 실을 수 있는 무게(1.1t)를 넘어선 건축 자재를 비롯해 모두 1.5t 가량의 물품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차량에 실린 자재를 단단히 묶지 않는 바람에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려 전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화물차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

교 교차로에서 화물차량이 한쪽으로 넘어져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 사고 역시 화물차 적재 중량은 1700kg 이었지만 구조를 멋대로 바꿔 2800kg 이나 초과하는 바람에 일어났다. 두 차례 화물차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모두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반복이었다.

화물차 사고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범규 준수가 우선이지만 둔발이었던 급급해 과다 적재를 관행처럼 여기는 업주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당국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떤 노래는 심장에 꽂 박힌다. 20년 도 더 지난 어느 날, '오월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랬다. 지금은 고인이 된 범능 스님(속명 정세현)이 이끌었던 '노래패 친구'의 여성 멤버 목소리는 너무 맑아서 슬펐다.

'봄별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 드리오 / 여기 죽지 않는 목숨에 이 노래 드리오 / 사람이여, 내 사람이여.'

등의 진폭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 고선용 씨가 연출을 맡은 '푸르는 날 에'에는 음악이 자주 등장한다. 도청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갈 때 흐르는 노래는 상송 '누가 내 할머니를 죽였다 (Qui a tue grand maman)'다. 우리에게는 '꽃잎처럼 금남로에'로 시작되는 '오월의 노래 2'로 익숙한 멜로디다. 작곡가는 프랑스 상송 가수 미셸 플라레프. 그는 1971년, 정성들이 가군 정원이 도시계획으로 망가지는 것에

연극과 노래

반대하다 죽은 루시앵 모리스를 추모하기 위해 이 곡을 만들었다.

핑크 플로이드의 'Another brick in the wall', 폴 케카의 'Diana'도 늘 들던 노래지만 작품 속에서 만날 땐 또 다른 느낌이다. 서정주의 시에 송창식이 곡을 부르고 직접 부른 '푸르는 날에'는 앞으로 이 연극의 연극 정면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될 듯하다.

2011년 초연 후 대한민국 연극상을 휩쓸고 최근 누적 관객 3만 명을 넘긴 '푸르는 날에'는 오는 22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된다. 놓치지 아까운 작품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 고

2020년 투자유치 2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제언



신태욱
광양만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본부장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 경제특구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지정된 광양만권, 인천, 부산·진해를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8곳이다.

광양경제청은 2004년 4월 개청해 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의 일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개청 10년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152개 기업 127억 달러의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고 3만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광양청은 '신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2020년까지 4대 전략을 세워 제2의

도약을 다지고 있다. 미래 신산업 생산기지 조성, 동북아 복합물류 및 비즈니스 구축, 국제적인 문화관광 정주도시 건설, 맞춤형 투자유치 및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으로 2020년까지 투자유치 250억 달러, 고용창출 24만명, 물동량 485만TEU, 소득창출 1인당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투자유치에 임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공해 가까지의 몇 가지 선결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광양만권 주력산업과 연계된 앵커기업(Anchor Company)의 집중 유치가 필요하다. 건설한 중견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

둘째, 유치업종별 특화된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타 경제청 보다 우월한 주력산업은 지속적으로 육성하면서 단지별 중점 유치업종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 규모화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기업활동에 유리한 질 높은 배후단지 정주환경 조성이다.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거·문화시설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의료기관 유치가 절실

하다.

넷째, 효율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투자 희망기업에 대한 광양만권 안내,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주자 기업에 대한 각종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해 당사자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과 지역주민 등 모든 관계자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다섯째, 입주기업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투자유치는 기업이 지역에 입주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공장건립 인·허가 절차, 기업애로사항 등 민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으로 증여 투자와 연관 기업 유치를 유도해야 한다.

광양만권 발전 정책에 따라 신단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국내외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이 전개하며 공무원과 지역민, 기업체가 지역발전에 한목소리를 내야 광양청의 미래는 밝다.

축할수록 투자유치 성과는 높다.

셋째, 투자협약체결(MOU) 기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MOU체결 기업은 투자실현 가능성이 높아 체결기업중 투자 미실현 기업의 원인분석, 기업 접촉,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 투자유치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전 직원을 투자유치 전문 요원화 하는 것이다. 투자유치 업무는 끈기와 인내력이 요구된다. 기업을 상대하는 대화 기법, 일반 상식 등 개인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투자유치는 일반적 공무원도 투자유치 전문성을 확보해 전 직원이 나서야 한다.

다섯째, 입주기업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투자유치는 기업이 지역에 입주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공장건립 인·허가 절차, 기업애로사항 등 민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으로 증여 투자와 연관 기업 유치를 유도해야 한다.

광양만권 발전 정책에 따라 신단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국내외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이 전개하며 공무원과 지역민, 기업체가 지역발전에 한목소리를 내야 광양청의 미래는 밝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